



2023년 12월호
VOL.345

홍미지진 공주

언제나처럼 순식간에 계묘년의 해가 저물고 있다. 공주에는 멀리 가지 않아도 아름다운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특히 청벽산 종턱에서 금강으로 떨어지는 낙조는 주변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청벽산으로 해넘이를 보러 가보는 건 어떨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못 다한 일들이 아쉬운 것도 잠시. 떠오를 해와 함께 펼쳐질 설레는 날들을 기대해보자.

청벽산 | 반포면 마암리 529-2

2023년 12월호
VOL.345

흥미진진 공주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인** 공주시장 **발행처**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제작·디자인 부운디자인 ☎ 042-255-6225

흥미진진 공주 통권 344호 공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층, 문맹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점자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구독 신청이나 취소, 주소 변경 및 지인 구독 추천에 대한 문의는 홍보미디어실(041-840-25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정 문의 ☎ 1899-0088 | 041-840-3800



● — 공 주, 다 움

공주에 살으리랏다!	04
역사가 답하다	06

☘ — 사 람, 자 람

화양연화 원도심	08
농업이 미래다	10
테마산책	12
기업이야기	14

☁ — 도 시, 돌 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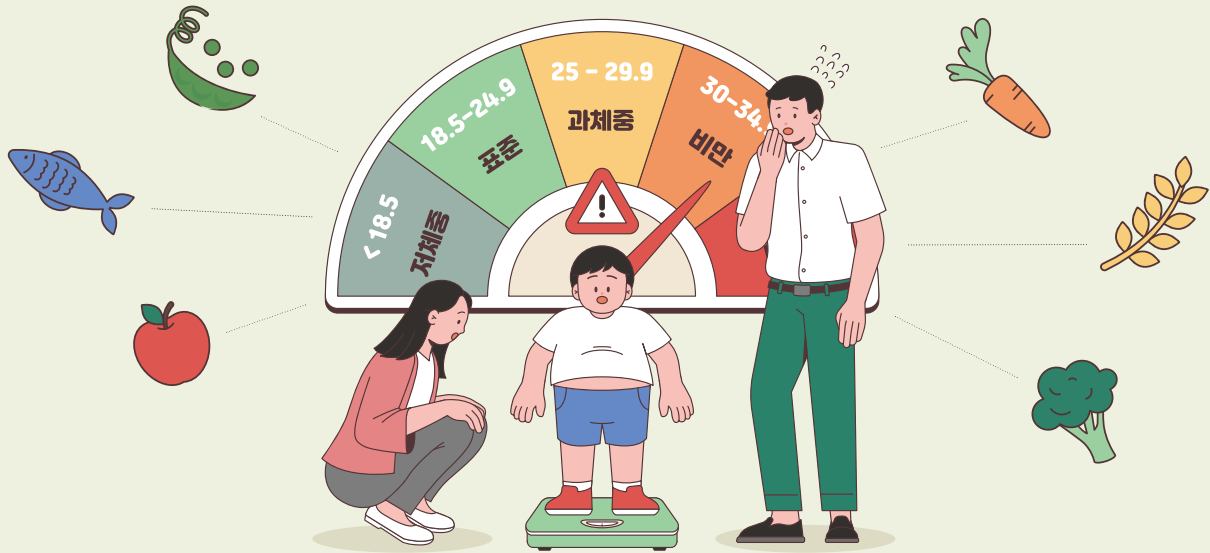
공주소식	16
공주알림	18
의정소식	20

🏠 — 행 복, 틈 움

시민기자	24
공주 설화를 찾아서	26
문화살롱+동행의 기쁨	27
이달의 인물	28
따스한 사람들을 만나다	29
이웃이 소개하는 로컬맛집	30
독자참여	31



우리 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함께해요 비만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비만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집콕생활'로 인한 신체활동 저하와 나쁜 생활 습관이 그 이유로 꼽혔다. 공주시는 올해부터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비만 예방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돕는 '함께해요 비만제로!'를 소개한다.

비만 없는 어린이는 건강한 미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신종전염병'이라 칭하며 세계 10대 건강 위험요인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제 비만은 뚱뚱하다는 우스갯소리를 넘어 모든 질병의 원인이자 각종 성인 병을 낳는 주범인 것.

비만이란 체내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더욱 심각한 건 최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인구에서 비만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학생건강 검사에 따르면 2022년 공주시 과체중·비만 청소년 비율은 20.5%로 전국 아동·청소년 비만율 18.7% 보다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기의 비만은 성인이 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 및 비만, 당뇨와 같은 성인병의 발생 위험 인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만 관리에 대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기 비만 학생의 약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때문에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건강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함께해요 비만제로'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흥미 유발 놀이형 영양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아동 혼자 노력의 아닌 선생님, 가족, 친구들, 지역사회가 협력해 '비만제로'를 달성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주시보건소는 올해부터 중동초등학교와 탄천초등학교 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비만제로’ 참여자 54명을 모집 했다. 하수빈(중동초, 4학년) 학생은 ‘함께해요 비만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로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야채를 즐겨먹지 않는 딸을 걱정했던 엄마 김순덕(45) 씨는 아침마다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찾는 딸을 보며 신기함을 감출 수 없다고 한다.

“요즘 친구들은 사춘기가 점점 빨리 온다고 하는데 사실 수빈이도 또래 친구들보다 성장이 빠른 편이라 성조숙증 주사를 맞고 있어요. 특히 소아비만은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함께해요 비만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길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야채를 입에도 안 대던 딸이 먼저 야채를 찾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난다며 싫어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30분씩 걷고, 틈틈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뿌듯해요. 덕분에 3개월 만에 4kg이나 감량했답니다.(웃음)”



‘함께해요 비만제로’ 프로그램 수료식



‘함께해요 비만제로’ 프로그램 참여자 하수빈, 이진옥 학생

올바른 생활습관이 평생 건강의 밑거름

‘함께해요 비만제로’ 프로그램은 주 1회 총 12주에 걸쳐 진행된다. 영양사는 학생들이 채소나 과일 같은 식품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한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텃밭에 상추모종을 심고, 직접 수확한 상추를 활용해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 건강간식을 만들어 보는 활동은 아이들의 편식습관을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밖에 아침밥을 꾸준히 먹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 진행됐다. 아침밥 대용으로 영양떡을 제공하고, 아침밥 먹기 OX 스티커 붙이기, 아침밥 먹기 피켓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비만 예방을 위해 아침밥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독려했다. 아침이면 ‘5분 만 더’를 외치며 잠과의 사투를 벌였던 이진옥(중동초, 4학년) 학생 역시 아침밥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뒤로는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고 등교하는 게 일상이 됐다.

지난 11월에는 ‘내 아이 비만 탈출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도 바뀐다!’를 주제로 ‘함께해요 비만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비만예방 교육이 열렸다. 진옥 학생의 엄마 이명실 (50) 씨는 교육을 통해 아동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금 느끼게 됐다고 한다.

“맛벌이다 보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날이면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치킨, 피자과 같은 음식을 자주 먹었던 거 같아요. 그러나 소아비만을 해결하려면 부모가 먼저 본보기를 보이고, 가족 모두가 함께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최대한 배달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줄이고 집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요. 또 정해진 식사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한답니다.”

수빈이와 진옥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뒤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결과 체중 감량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는 것. 모든 어린이들이 비만으로부터 건강해지는 날을 위해 앞으로도 공주시의 ‘함께해요 비만제로!’는 계속될 예정이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 당대 최고의 헤어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국보 ⑩ 무령왕 금제 뒤꽂이

이한상
대전대학교 교수
(전)국립공주박물관 학예사

왕이 돌아가셨다. 백제 제25대 무령왕이 돌아가셨다. 523년 5월 7일의 일이다. 그리고 보면 2023년은 무령왕이 돌아가신 지 1,500주년이 되는 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국보 12건을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국보를 만나보는 감동을 느껴보자.

무령왕과 왕비가 세상을 뜨자 백제 왕실은 그들의 시신을 생전 그 이상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살아있을 당시 누린 영화를 사후 세계로 고스란히 가져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중 시신을 장식한 황금 유물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가 있었으니 바로 왕의 머리에 장식했던 뒤꽂이다. 뒤꽂이란 비녀의 일종인데 왕비 유해부에서 비녀가 출토되지 않은 점과 대조를 이룬다.

‘단독 샷’으로 공개된 대표 유물

1971년 7월 8일 저녁. 왕릉 발굴단이 직면한 큰 고민은 ‘무덤방을 가득 채운 목관 부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였다. 짧은 회의를 끝으로 내린 결론은 발굴 시간 단축을 위해 상세한 조사 없이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었다. 목관 부재를 밖으로 반출하자 곳곳에서 유물이 드러났는데 특히 왕의 목관 쪽을 발굴하던 조사원들의 시야에 나무 베개 조각과 함께 청동거울 하나가 들어왔다. 자세히 살피니 거울 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황금 장식이 올려져 있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활짝 편 채 날아오르는 듯한 모양이었고 연화문과 당초문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왕릉 내부 발굴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조사단은 쉴 겨를이 없었다. 왕릉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워낙 컸기에

중요 유물을 선정해 조속히 언론에 공개해야만 했다. 왕릉 출토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덤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준 지석이었지만 4면에 걸친 지석의 글귀를 정확히 판독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기에 귀금속 장신구를 중심으로 ‘대표 유물’을 선정했다. 제일 먼저 선택받은 유물은 왕과 왕비의 관식이었고, 왕의 뒤꽂이도 ‘머리 뒤꽂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유물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왕과 왕비의 귀걸이, 왕비 팔찌, 왕비 목걸이가 추가됐다. 그날 리스트에 올린 유물 대부분이 훗날 국보로 지정됐다. 1971년 7월 10일 유물이 공개되자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벌어졌고 이튿날 주요 일간지에 발굴 소식과 함께 유물 사진이 큼지막하게 게재됐다. 뒤꽂이의 경우 모양이 특이했기 때문인지 ‘단독 샷’으로 소개되며 세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일까?

무령왕릉 출토품 가운데는 청자나 오수전처럼 중국 남조에서 들어온 것이 있다. 이러한 외래품은 국제무역을 통해 수입된 것이 라기보다 백제와 양나라 사이의 교류 혹은 왕의 장례식에 맞추어 백제를 찾은 양나라 조문 사절이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흔히 고고학자들은 특정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을 살피다가 특이한 사례가 확인되면 그것의 제작지를 외국 혹은 외지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무령왕 뒤꽂이도 그러했다.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나 가야 유적에서도 유사 사례가 출토된 적이 없었기에 뒤꽂이 완제품이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거나, 중국 남조 물품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중국 옛 문헌에는 비녀를 뜻하는 글자로 채(釵), 잠(簪), 계(笄)가 등장한다. 잠과 계는 동의어로 몸체가 한 가닥이지만 채는 몸체가 두 가닥이어서 다르다. 중국 여러 유적에서는 이 두 종류의 비녀가 종종 함께 출토되곤 하며 남성 무덤에서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를 보면 동오(東吳)에서 남북조까지는 형태가 간소한 편이고 당나라와 송나라 때가 되면 모양이 다양해지고 무늬가 화려해진다. 당나라 비녀 가운데 새가 날개를 펴고 나는 듯한 모양의 사례가 있지만 장식부가 별도로 제작돼 한 가닥 혹은 두 가닥 몸체에 뿔질로 부착된 것이라 무령왕 뒤꽂이와는 다르다.

무령왕 금제 뒤꽂이는 두께 1mm의 장방형 금판을 두드려 만든 일체형이고 하부가 세 가닥을 이룬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형성을 갖춘 비녀는 백제는 물론 동아시아 여러 왕조에서도 유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사례다. 따라서 이 뒤꽂이는 백제 왕실공방에서 특별히 제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명장의 자신감이 빛은 명품 비녀

무령왕의 뒤꽂이는 정교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령왕릉 출토 금속공예품 가운데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물이 국보로 지정된 이유는 빼어난 조형미 때문일 것이다.



뒤꽂이 뒷면

작품을 만든 백제 장인은 금의 성질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주어진 장방형 금판의 아래쪽은 두드려 퍼지 않은 채 세로로 절단해 세 가닥으로 만들고, 중간 위쪽으로는 자신이 구상한 모양에 맞춰 금판을 두드려 얇게 폈다. 이어 본디 외래 문양이었지만 이미 백제화된 연화문과 당초문을 새겼는데 같은 시기의 정교한 금속공예품과 달리 밑그림을 그리지 않은 채 장인이 머릿속에서 구상한 무늬를 끌과 망치를 이용해 망설임 없이 새긴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확대경으로 보면 문양 일부가 겹쳐있기도 하고 또 비뚤비뚤한 부분이 확인되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움과 생동감을 부여했다.

이처럼 무령왕의 금제 뒤꽂이는 비록 평면적인 자그마한 공예품이지만 그것에는 무령왕대 백제 최고의 장인이 지녔던 창의성과 자신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용광로'와도 같았던 6세기 백제 사회의 일면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농촌이란 블루오션에서 창업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배동주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청년후계농 상추연구소 대표

청년을 떠올리면 흔히 '열정, 패기, 희망, 꿈, 젊음' 등의 단어가 연상된다. 그렇다면 청년과 '농업인'이라는 단어는 어떨까. 최근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청년후계농이 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열정으로 농업 분야 창업에 도전한 상추연구소 배동주(이인면, 40) 대표를 만났다.



농사의 매력을 창업의 출발점으로 삼다 🌱

배동주 대표는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청년후계농이다. 어렸을 적부터 사업가를 꿈꿨지만 농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제로 배 대표는 귀농 전 이미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사업체를 운영하던 CEO였다. 축산이 농업에 속한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농업에는 문외한이었던 그가 지금의 청년후계농이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께서 퇴직 후에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일손이 부족해 주말이면 고향인 논산에 내려가 아버지를 도와드렸죠. 그러다 점점 농업의 매력에 빠져든 거 같아요. 요즘 말로 ‘농머든다’고 하나요?(웃음) 일을 하면서 흘리는 땀이 개운하고, 아무것도 없던 흙에서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맘이 뿌듯하더라고요.”



2019년 가을, 배 대표는 공주시에 터를 잡고 본격적인 귀농 준비를 시작했다. 농업을 단순히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았던 배 대표는 농업 분야를 하나의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창업 농업인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했다.

현재 그가 도전하는 농업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직접 운영하는 스마트팜 온실 ‘상추연구소’서는 쌈채소, 유럽채소, 허브 등 16종류의 업체류가 자라고 있다. 이곳은 농사를 짓는 일터이자 청년들이 모여 농업을 연구하고 실습을 진행하는 교육장으로도 사용된다. 최근에는 청년들과 함께 공동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 농사를 지으며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농기계 개발로 이어져 특허 출원을 기다리는 중이다.

청년들과 함께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다

최근 배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가루쌀’이다. 분질미라고도 불리는 가루쌀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밀을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쌀이다. 일반쌀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불린 후 뺏아야 하지만, 가루쌀은 바로 가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공 공정과 비용을 함께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저기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빵, 떡, 면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흔한 메뉴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메뉴에 주목했어요. 그 결과 가루쌀을 활용한 아이스크림과 라떼, 소스류를 개발할 수 있었어요. 현재까지 1차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로 공주에서 생산되는 밤을 가루쌀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배 대표는 지난해부터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농장 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효율이 약 30%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2건 확보와 충청남도 청년창업창직 지원사업을 통해 가루쌀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다.

그는 청년들에게 농촌이 ‘머물고 싶은 일터’로 기억되길 바란다. 지방의 청년인구가 점점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이 소멸되는 이유 중 하나도 탄탄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를

위해 2022년에는 예비 청년후계농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며 참여한 4명이 전원 후계농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이밖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방시대 위원회 특위, 충남 청년정책 조정위원, 공주시 청년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2018년도에 시작된 청년후계농 제도는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년인구의 유입’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쉬움이 큼니다. 현재 농업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순수 농업만으로는 수익구조가 나오기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유피(농UP)’와 같이 청년농업인들과 협력하며 농촌의 활성화와 수익구조의 다각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보고자 합니다.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배 대표는 인스타그램과 공주시청년센터를 통해 농유피(농UP)의 2기 멤버를 모집하고 있다. 더욱 많은 청년농업인들과 경험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꿈과 열정을 안고 농촌을 찾는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그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행복 찾아가는 귀농이야기

—
신민재
농장농부의손 대표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된다. 터닝포인트란 말 그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점'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이직, 여행, 유학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 농장농부의손 신민재(신풍면, 50) 대표는 14년 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귀농을 선택했다. 귀농 후 생애 가장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그의 미소는 한낮의 겨울 햇살처럼 포근했다.

삶의 터닝포인트가 된 귀농

신민재 대표가 귀농한 건 3년 전이다. 6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제대했을 만큼 활동적이고 건강했던 신 대표는 36살의 젊은 나이에 신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그는 2009년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2년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돌이켜 보니 그 시기가 신 대표에게는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터닝포인트’였다.

“신장이식은 완치가 아니라 언젠가 투석을 받게 되는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지게차 면허증도 취득하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신 대표는 지게차 기사부터 사무직 회사원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2017년 충남금산 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입사 제의를 받았다. 당시 TV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부 인터뷰를 보고 버섯 농사에 관심이 있던 터라 흔쾌히 수락했고, 금산에서 보낸 시간은 훗날 귀농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3년간 표고버섯재배 사업단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지 표고버섯 재배하는 일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버섯 재배 교육, 인력관리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던 2020년, 기저질환자로 감염 위험이 높았던 신 대표는 정든 일터를 떠나 귀농을 선택했다. 농업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공부하기 위해 산림청 귀산촌 교육을 통해 표고버섯 및 임업 관련 교육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표고버섯 관련 스마트팜 교육, 표고버섯 재배 관련 교육을 수료했다. 이외에도 표고버섯재배 농가를 견학하고 실습하는 등 농사를 향한 그의 학구열은 대단했다.

정직함으로 재배하는 건강한 버섯

현재 신 대표는 84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7동에서 배지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사시사철 생산이 가능하고 작은 면적에서도 생산량이 많으며,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버섯 농사가 적합했기 때문. 지금까지는 표고버섯을 주로 재배했지만, 점점 느타리버섯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올해부터는 느타리버섯 재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임금님 진상에 올랐다는 화고버섯은 표고버섯 가운데 가장 고가로 판매됩니다. 버섯이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예민한 작물이라 화고버섯을 재배하려면 조그마한 온도 차이에도 에어컨과 난방기를 쉴 새 없이 틀면서 버섯을 생육해야 해요. 전 그 방식이 환경에도 안 좋을뿐더러 버섯을 괴롭히는 일 같더라고요. 요즘 주위에서 동물복지라는 문구가 많이 보이는데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웃음)”

신 대표는 겉으로만 예쁜 것이 아닌 속까지 건강한 농산물을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때문에 그가 재배하는 버섯은 친환경 배지에서 자라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다. 크기가 고르지 않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맛은 자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한마디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예쁜 모양의 농산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만 모양이 이상해도 폐기되거나 헐값에 팔리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품질이나 성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묵묵히 정직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들의 땀과 노력을 알아주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면 더욱 보람될 거 같습니다.”



공주는 겨울에도 '즐거움' 이 가득해!

크리스마스 와 흰 눈이 기다려지는 12월, 매서운 추위가 무서워 이불 밖을 나서기 힘든 계절이 찾아왔다. 그러나 날씨가 춥다고 해서 집에만 있을 순 없다. 하루에 30분 이상 야외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겨울철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기 때문. 멀리 가지 않고도 공주 곳곳에서 온몸으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소개한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놀이터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겨보자.



자연 친화 공간에서 맘껏 뛰어노는 유구 어린이 생태놀이터



어린이들의 세상은 온통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하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직접 만져보고 다양한 소리를 듣고 맛보는 등 오감 체험을 통해 호기심 충족과 더불어 사고를 확장해 나간다. 작년 11월 조성된 유구 어린이 생태놀이터는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의 놀이터에서 벗어나 돌이나 흙, 통나무 등 자연 소재를 주재료로 활용해 조성됐다. 아이들에게 어린이 생태놀이터는 마음껏 뛰어놀면서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무대가 된다. 유구 어린이 생태놀이터는 그물로 만들어진 스파이더네트와 통나무 흔들놀이대, 통나무 매달리기, 미끄럼틀 등 도전과 모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시설과 입자가 고운 모래가 풍성하게 깔려 있는 모래놀이터, 생태화단으로 구성됐다. 특히 유구천변이 흰히 내다 보이는 놀이터에서는 여름에는 수국이 가을에는 핑크몰리가 만개해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48-18



숲에서 즐기는 재미있는 전통놀이 한옥마을 역사체험 놀이터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주한옥마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터가 있다. 한옥마을 안에 조성된 역사체험 놀이터는 밧줄놀이, 전통그네 등 우리나라 전통 놀이기구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숲 놀이터다. 대형 미끄럼틀부터 숲속 네트 놀이, 균형 잡고 건너기, 나무 시소 등 총 11개의 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신나는 하루를 보장할 수 있는 신나는 놀이공원. 아이들은 모래, 흙, 목재 등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숲속을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운다. 이밖에도 놀이터 곳곳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돼 색다른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특히 한적하고 고즈넉한 숲속을 거닐며 느껴보는 겨울 정취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힐링을 선사한다.

📍 공주시 관광단지길 12

몸을 녹여주는 족욕과 운동을 동시에 미나리공원 어르신놀이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나리 공원에 위치한 어르신 놀이터는 '국내 최초의 어르신놀이터'로 노인 건강 증진과 편의 도모, 여가 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때문에 놀이터에는 어르신들의 간단한 신체활동을 돕는 맞춤형 운동기구가 설치돼 눈길을 끈다. 운동기구들은 손가락과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어렵지 않은 동작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운동시설 옆에는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족욕탕이 마련됐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시사철 따뜻한 물이 공급되는 야외 족욕 시설이다. 추운 날씨에 움츠렸던 몸을 나른하게 풀어주는 족욕탕은 겨울이면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는 동네 사랑방이다.

📍 공주시 미나리3길 8



흥미진진공주 '기업이야기'에서는 공주시 향토기업 2세 경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영인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 향후계획 등을 알아본다. 공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미래를 그리는 2세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의료용 금형제작 및 사출성형 전문기업 최상의 기술·최고의 품질로 고객만족을 실현하다

김태용
서경테크칼 부장

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마라톤을 뛰는 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 단박에 승부가 가려지는 스포츠가 아닌 적게는 10km, 길게는 42.195km의 레이스를 자신만의 페이스로 꾸준히 달려야 하는 것. 출발선은 같지만 누구나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닮았다. 우성면에 위치한 서경테크칼은 업력 30년의 금형 제작 및 사출성형 분야의 전문기업이다. 의료·산업기기 분야라는 한 길을 꾸준히 달려온 이들은 앞으로도 결승선이 없는 끝없는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고객사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고 숙련된 품질 관리 서비스를 통해 오랜 기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서경테크칼 김태용(40) 부장으로부터 비결을 들어봤다.

📍 공주시 우성면 방문길 18-21 ☎ 041-853-1988

Q. 서경테크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공주시로 터를 잡게 된 계기가 있었다.

서경테크칼은 부친이신 김영희 대표께서 1989년 창립한 금형제작업 분야의 전문기업이다. 당시 대표님께서 주 매출처였던 대부분의 고객사가 공주를 비롯한 충남권에 위치해 있었기에 물류비 절감 및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공장 이전을 염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8년 신아양행(우성면)에서 공주시 이전을 제안한 것을 인연으로 우성면에 터를 잡으며 금형제작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출분야의 비중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서경테크칼에서는 고객사가 특정 제품을 양산하고자 할 때 틀에 해당하는 금형제작을 의뢰하면 기업에서는 금형을 제작하고, 사출기계에 제작한 금형을 탑재해 양산해 주는 일을 모두 수행한다. 특히 산업용 주사기 부품, 의료침구 부품, 치과용 주사기 부품 등 산업·의료주사기 부품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금형 제작 및 사출 전문기업이다.

Q. 기업의 사출 생산품 가운데 의료기기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의료 분야에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신아양행과 같이 의료기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고객사들의 수요가 가장 큰 이유였다. 공주로의 이전 시기만 하더라도 인술린 주사기라는 제품 생산에 치중했으나, 그 후로 주사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고객사들과 협업이 꾸준히 지속되며 자연스럽게 의료기기 부품 분야에 주목하게 됐다. 의료기기 분야는 인류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수요가 많고, 경쟁도 치열하다. 지금껏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30년간 변함없이 우수한 품질을 유지했던 기술력과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Q. 의료용 플라스틱 금형 제작 및 사출성형에 특화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고객사에서 원하는 품질과 물량을 맞추는 것이다. 이에 서경테크칼은 금형제작부터 사출성형, 품질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공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CNC(컴퓨터수치제어)가 적용된 장비를 도입해 더욱 정밀한 금형 제작이 가능하다. CNC가공이란 CNC공작기계를 이용해 가공하는 기술로써 설계 도면을 토대로 원하는 형상을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고, 반복 정확도가 높아 품질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사출취출 로봇, 컨베이어 벨트 장치 설치 등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밖에 정밀 전자 현미경 장비 등을 통한 품질관리와 숙련된 인력관리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다양한 고객사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고 있다.

Q.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본인에게 기업승계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서경테크칼은 부모님과 작은아버지, 동생 등 제가 경영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일구어 놓은 ‘가족기업’이다. 3년 전 입사해 현재 회계 업무와 금형 설비 중 하나인 슈퍼드릴 가공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법학과 전자공학을 공부해 온 저에게는 새로운 분야로의 ‘현재진행형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다. 서경테크칼은 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 부품 제조기업으로서 오래 존속하며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 앞으로도 경영에 참여하며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Q. 기업을 운영하며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해 옹벽이 무너지면서 원재료 보관 장소였던 컨테이너 2동이 쓰러진 피해가 있었다. 다행히 직원들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이밖에 중기부장관, 시장님께서 직접 기업에 방문해 신경 써 주신 덕분에 복구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현재 옹벽은 모두 복구됐고 컨테이너 제작 공정을 일부 남겨둔 상태다. 이처럼 서경테크칼에는 평균 20년 이상 근속하며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이 많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에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함께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해 올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Q. 공주 차세대 분과 모임을 통해 느끼는 점이 있다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가치를 가까이서 보고 들으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싶다. 지난달에 개최된 공주시 간담회에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 초 발족해 아직 연혁이 길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미루어 봤을 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모임이라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서경테크칼은 다양한 고객사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제품을 위탁 생산, 공급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향후 기업에서는 사업성 있는 자체 완성품이나 브랜드를 만들어 유통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공장 주변으로 같은 규모의 부지를 마련해 둔 상태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공주소식

공주알림

의정소식

고향사랑 기부하고 특별답례품 받으세요

공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시존 한정 특별답례품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제 특별답례품 공개모집을 통해 ▲수능 테마 ‘합격 기원 찹쌀떡 세트’와 ▲성탄절 테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면 설기떡 세트’ 등 2종을 선정했다.

수능을 앞두고 선보였던 ‘합격 기원 찹쌀떡 세트’는 42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자떡집의 대표 떡들로 이뤄진 제품이다. 공주 대표 특산품인 ‘알밤’을 통째로 넣은 알밤찹쌀떡이 포함돼 있으며 수능 응원 메시지를 담은 카드와 ‘찍기 포크’ 등이 포함됐다.

공주궁중떡집의 떡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면 설기떡 세트’는 천연 식재료만 사용해 만든 프리미엄 설기 4가지 맛을 담고 있다. 성탄절 메시지 카드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원초를 넣어 원하는 곳으로 배송한다.

이번 답례품은 가족, 친구, 친지, 주변 이웃 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응원과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기부자가 받는 기존 방식의 일반 답례품과 차별화했다.

해당 답례품은 3만원 상당으로, 기부금 10만원 이상을 기부해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별답례품을 적극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소셜미디어(SNS)에 홍보물을 공유한 뒤 이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향사랑 기부제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미래전략실(041-840-2051)

제16회 웅진문화대상 수상자 시상

공주시가 공주시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인 ‘제16회 웅진문화대상’을 시상했다.

‘웅진문화대상은’ 1998년부터 격년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주시의 명예를 빛낸 분들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총 6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시는 지난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개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종구 언론인은 35년간 지역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도로 지역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또한 장학회, 봉사회 등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장원석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은 지역사회 내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활발한 봉사 실천으로 시민 복리 향상에 헌신했으며 특히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했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인 이혜준 명예교수는 25년간 공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 역사 연구와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 콘텐츠 활용, 시민강좌 등 시민문화 향유에 헌신했다. 특히 공주학 연구로 지역 역사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체육 부문 수상자인 윤석형 전 공주시 체육회장은 지역 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체육 활성화 및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했으며, 특히 초대 공주시 민선 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공주시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공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웅진문화대상 수상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행정지원과(041-840-2048)



치매안심센터 2관 개소,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공주시가 시민들의 치매 걱정 없는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2관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한 2관에서는 재가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교구 교재를 활용해 전문작업치료사들이 1:1 맞춤형 인지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 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그동안 장소가 협소해 운영하지 못했던 치매환자의 신체 활동과 체력 증진을 위한 몸 건강 오락실과 뇌운동학교 기억지킴교실, 가족지원사업 등도 진행된다.

지난 2018년 충남에서 최초로 건립된 치매안심센터 1관에서는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사업을 수행한다.

시 담당자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통합 관리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치매 가 있어도 걱정 없는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치매정신과(041-840-3337)

‘목재문화체험장’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호응

공주시 주미산 자연휴양림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목재 전문 교육은 대한민국 목공예 명장 1호인 유석근 명장이 서각과 소목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목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패, 끌, 톱, 조각도 등 수공구만을 이용해 서안, 찻상, 서랍장 등 다양한 가구를 만들고 조각 기법을 활용하여 글씨, 그림 등을 목재에 표현하는 과정이다. 유 명장의 세심한 지도로 도제식 교육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목재 체험 프로그램은 90여종의 다양한 체험교구를 활용해 테이블, 쟁반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체험교구는 현장에 갖춰져 있으며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백, 쑥, 햇물탕 등 기호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편백 족욕장도 인기가 높다. 족욕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 근육, 내부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주미산 산행을 마친 등산객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041-840-2576)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 재개

공주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했던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를 이달부터 재개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해 공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방문요양센터의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목욕 설비를 갖춘 이동목욕 차량을 새롭게 구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등을 갖춘 담당 직원을 총원하는 등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목욕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사전 방문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신청은 공주시자원봉사센터 또는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041-840-3252)으로 하면 된다.

문의 건강관리과(041-840-3286)

공주소식

공주알림

의정소식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공주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공주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공주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 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관할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 대표 민원 처리기관이다.

- **일 시** 2023. 12. 15.(금) 10:00 ~ 16:00
- **장 소** 공주시청 3층 대백제실
- **신청기간** 2023. 12. 4.(월)까지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분 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서민금융 지원, 소비자피해구제, 지적(地籍)분쟁, 노동관계(실업급여)등 모든 행정분야의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 운영

문의 기획감사실(041-840-2093~4)

2024년 수도요금 인상 안내

• **요금 인상배경**

-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41%, 하수도는 8.19%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요금체계
- 지속되는 공기업 재정적자로 인한 안정적인 급수공급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 **요금 인상시기 및 인상률**

- 인상시기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승
- 인상률 : 매년 상수도 및 구경별 기본요금 12%, 하수도 20%

• **구간별 요금표**

- 상수도

업종	사용량(m)	m당 요금(원)	
		현재	2024. 1~
가정용	1~20	750	840
	21~30	1,310	1,460
	31 이상	1,830	2,040
일반용	1~100	1,480	1,650
	101~300	1,790	2,000
	301 이상	2,400	2,680
공업용	1 이상	1,230	1,370

- 하수도

업종	사용량(m)	m당 요금(원)	
		현재	2024. 1~
가정용	1~20	360	430
	21~30	450	540
	31 이상	730	870
일반용	1~100	440	520
	101~300	660	790
	301 이상	960	1,150

- 구경별 기본요금

구경	금액(원)	
	현재	2024. 1~
13mm	1,590	1,780
20mm	3,200	3,580
25mm	4,810	5,380
32mm	8,030	8,990
40mm	13,180	14,760
50mm	21,700	24,300
75mm	45,220	50,640
100mm	73,560	82,380
150mm	153,220	171,600
200mm	244,850	274,230
250mm	354,060	396,540

문의 상하수도과(041-840-3800)



겨울철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동파예방 안내

겨울철 동파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고 불편 없는 수도물 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예방해 주세요.

• 점검대상 수도시설물

- 계량기 보호통, 마당의 수도관 및 수도꼭지
- 옥상 물탱크, 옥외 화장실 등에 노출된 수도관

• 수도시설(수도계량기, 수도전) 동파 예방 방법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헨 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기
- 노출된 수도관을 스티로폼, 헨 옷 등의 보온재로 감싸기
-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기
- 혹한 시 수도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 받아서 사용하기

• 동결 시 조치사항

- 상하수도관이 얼었을 경우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뜨거운 물로 녹임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수건으로 감고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 등으로 서서히 녹임
 - ※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 위험
- 수도시설 복구요청(계량기·보호통 : 041-840-8599, 수도관 : 041-840-2346)

☎ 문의 상하수도과(041-840-3800)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신청하세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기간

- 2024. 2. 10.(토)까지

• 투표기간

- 2024. 3. 27.(수) ~ 2024. 4. 1.(월) 매일 8시 ~ 17시

이달의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정의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의한 질환

• 감염경로

-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 수직감염(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수유)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 감염된 혈액의 수혈

•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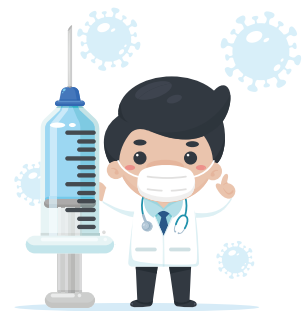
초기 (급성HIV증후군)	- 감염 후 3~6주 - 독감증상(몸살감과 비슷한 증상)
무증상기	- 5년 ~ 10년 - 증상없음
질병 진행기 (AIDS)	- HIV 감염 후 10년 이내 - 무기력, 면역기능의 저하로 인한 대상포진 - 암 위험성 증가

• 예방

- 올바른 방법으로 콘돔 사용
- 고정적인 파트너와 안전한 성관계
- 빠른 발견·치료를 위한 조기 검사
 - ※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익명 검사 실시

• 에이즈, 일상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악수 포옹 입맞춤으로 감염 NO
- 함께 식사할 때 감염 NO
- 침과 땀으로 감염 NO
- 모기를 통해 감염 NO



☎ 문의 공주시보건소(041-840-3681~2)

공주소식

공주알림

의정소식

공주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최

2024년 예산심의 등 22일간 열려

공주시의회가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1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일정별로 보면 11월 20일 첫날 1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상정 및 제안설명을, 이어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추경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4차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예산안은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시성, 선심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다.

윤구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동안 공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예술공간에서 만나는 명탄서원

명탄서원 유교아카데미 민체반 졸업 작품 40점 전시

공주시의회는 시민예술공간에서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명탄서원 토요일 인문학강좌 제5기 유교아카데미 문인화반 졸업작품’을 전시한다.

‘명탄서원 세상나들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민체(民體) 서예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민체(禪畫)는 궁체와는 달리 결구가 엄격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돼있어 서민들의 편지글 등에서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글씨체이다.

의회 내방객들은 시민예술공간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시간만큼은 잔잔한 감동과 힐링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윤구병 의장은 “민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감성과 생각을 표현하기 좋은 글씨체”라며 “많은 시민이 전시회에 오셔서 회원 여러분의 예술혼을 느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명탄서원(원장 이운일)은 유교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지역문화 유산의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르게 주체적인 역사관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분 자유발언

대백제전의 성공개최와 세계적 문화축제로 발전

권경운 | 공주시의회 의원



올해 백제문화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대백제전으로 치러졌다. 대백제전의 주제는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이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백제교류도시로서 세계 역사문화축제의 위치를 재조명했으며 한류의 원조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17일간의 대백제전 기간 동안 6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특히 웅진성 퍼레이드, 수상멀티미디어쇼, 미디어아트관 등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중 수상멀티미디어쇼는 수상 구조물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매일 수천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었다.

백제문화를 즐기기 위해 공주를 찾은 관람객만 180만 명을 넘어서고, 부여까지 합치면 모두 3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대백제전을 즐기는 등 역대 최고의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누구보다 수고했던 자원봉사자들과 방문객을 따뜻하게 환대했던 공주시민, 공주시 공무원들의 숨은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7월 큰 비로 금강 미르섬을 비롯한 축제장 일원이 쓸대밭이 됐고, 축제를 이틀 앞둔 9월 21일에는 130mm가 넘는 폭우로 배다리와 유등, 황포돛배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꽃을 심는 등 복원에 구슬땀을 쏟은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대백제전은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축제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간 의미 있는 축제였다고 생각한다. 방문객들 역시 친환경적인 접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행사 기간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폭우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이 지연됐고, 웅진성 퍼레이드는 웅장한 느낌은 있지만 행사업체 주도의 획일화된 구성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집행부는 2023년 대백제전의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백제문화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초고령사회 올바른 치매예방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임달희 | 공주시의회 부의장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치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드는 이유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의견이 0.2%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치매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는 경향이 있어 ‘인지저하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2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 일본보다 초고속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치매 등급을 받고 데이케어, 요양원 등에서 관리를 받는 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가족간의 갈등,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이 혼재되어 형제간 우애까지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치매의 증상에 대해 경험 또는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인지기능이 무엇인지, 올바른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간과하고 있다. 치매 잠복기는 20년이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40~50대 조발성 치매가 증가 추세에 있다. 치매는 노령층에서만 걸리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는 뇌의

노화가 시작되는 40~50대부터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뇌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올바른 뇌인지훈련, 운동, 사회봉사, 취미활동, 독서 등)을 알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과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노인빈곤율과 노인 재취업 고용률이 1위인 우리나라 노년층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뇌 인지기능 개선 훈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공주시는 노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이다.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

두 번째 시정질문 소회

이용성 | 공주시의회 의원



시정질문은 공주시의 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이번 두 번째 시정질문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수개월 앞둔 시기부터 시민 여러분의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접수했다. 그리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되었던 사실들을 모아 고민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토론하며 꼼꼼히 시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집행부의 태도는 안타까웠다. 물론 시 의원들과 뜻을 함께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답변해 준 직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쉬운 답변을 주신 직원도 있었다.

특히 이번 여름에 발생한 수해 피해 질문과 관련해 많은 아쉬운 점을 느꼈다. 조금 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안전과 관련 사항은 타협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내가 대표 발의로 제정한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내용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 개최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약속하겠다.

시민들에게 재난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편을 드렸던 사항은 의회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을 통해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의원에게 주신 가장 강한 권한 중 하나인 ‘입법권’을 사용하겠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느낀 점은 ‘집행부와 시민들의 간극을 줄이고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회는 견제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견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물론 나를 포함 한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의원의 역할인 만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리겠다.

시 민 평 예 기 자 가 전 하 는

1500년 전 백제 무령왕 장례식은 어땠을까

‘1500년 전 백제 무령왕 장례’ 특별전이 국립 공주박물관에서 지난 9월 19일 개막해 오는 12월 10일까지 개최된다. 52년 전인 1971년 공주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반전시킨 것이 무령왕릉 발굴이다. 삼국 중 피정자의 주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왕릉으로, 공주가 일약 백제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다. 무령왕은 공주를 비로소 백제의 왕도가 되게 한 인물로, 1500년 전 위대한 무령왕의 장례식이 재현됐다. 기울어져 가던 백제를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린 옛 영토를 되찾아 나라 안팎으로 다시 부강한 나라 ‘강위강국(更爲強國)’을 선포한 무령왕의 죽음은 아들 성왕에게 크나큰 슬픔이자 위기의 순간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비통함을 뒤로 하고 왕의 빈자리를 새로운 왕권으로 채워 나라의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결단의 첫걸음으로 장례식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안정적인 왕권을 계승했던 당시 성왕과 백제인들의 슬픔과 희망을 재조명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1500년 전 백제왕실의 장례식 무대를 둘러보며 당시 사람들의 특별했던 왕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는지,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김정화(웅진동)



따뜻한 정 함께 나누는 '제3회 공주깍두기 축제'

제3회 공주 깍두기 축제가 11월 11일 반죽동 당간지주 공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축제는 공주시 중학동행정복지센터가 주최하고 중학동새마을회, (사)공주시청년회, 중학동 통장협의회가 후원했다. 깍두기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12가지 반찬 중 하나로 '조선요리학'에 의하면 정조 대왕 딸인 숙성옹주가 처음 만들어 오빠인 순조에게 바쳤고 당시 한자로 음차해 '각독기'라 칭했다. 이후 공주로 낙향한 정승 중 한 사람이 깍두기를 민간에 퍼뜨려 '공주 깍두기'가 유래됐다. 이번 행사는 공주 깍두기의 유래를 홍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담근 깍두기 1톤을 시민들에게 증정하고 공주시청년회에서 준비한 국밥 500그릇을 함께 나눴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준비된 깍두기가 모두 소진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겼고, 뜨끈한 국밥과 갓 담은 깍두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분들의 온정이 공주 깍두기의 맛과 버무려져 내년 축제의 성공을 기대한다.

구자희(금학동)



한궁(韓弓)대회 열려 어르신들 건강증진 기여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생활체육 대표 종목인 한궁(韓弓)대회가 사곡면에서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월 10일 사곡면 호계2리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사곡면 회장배 한궁대회에는 23개 경로당 회장 및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궁은 우리나라 전통 국궁과 투호, 서양의 다트를 결합한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표적에 왼손과 오른손 각각 5회씩 투구해 합산 점수를 비교해 승패를 가리면서 양손 운동으로 좌우 집중력은 물론 팔의 유연성 및 근력을 키우고 신체의 평형성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요즘처럼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포츠다. 이날 경기에서는 멋진 승부 끝에 화월리가 1위를 차지했고, 호계2리와 회화리가 2위, 호계1리가 3위를, 월가리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길은정(사곡면)





공 주 의 현 장

공주 '숙종대왕 태실비'의 현재와 미래

태봉동 태봉산에 충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공주숙종대왕태실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드물다. 태실이란 조선시대 왕자녀의 출산 시 그 태를 묻은 곳이다. 태의 주인이 국왕에 등극하면 석물과 귀부석을 더해 봉하는데 이를 '가봉태실'이라 부른다. 태봉산 북편에서 오솔길을 따라 약 15분간 오르면 마주하는 태실비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정비 역시 소홀한 상황이다.

이 낯선 문화재를 소개하는 이유는 서울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때문이다. 조선 왕조 가봉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공주 숙종대왕 태실을 비롯한 조선왕조 가봉태실 약 27곳을 대상으로 가치 평가를 실시해 10곳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추진 대상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공주 숙종대왕 태실이 10곳의 잠정 목록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숙종대왕 태실은 문화재 명칭에서 보이듯이 태실비만 남아있고 그 밖의 주요 부재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5월 태봉산 밑자락에서 태실 관련 석물이 수습돼 충남도역사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숙종대왕 태실의 복원 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보여준다.

김병완(월송동)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1회 락, 바비큐페스티벌'

제1회 락 & 바비큐페스티벌이 11월 4일과 5일 이인면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락(Rock) 공연과 바비큐 향기가 온통 마을을 뒤덮고 구름인파로 장사진을 이뤄 이인면이 들썩들썩했다.

면에서 큰 축제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마을복지자인 철방 공간 활용, 이인면 자율 방법대와 전담의용소방대가 주차 안내 및 안전관리에 힘쓰는 등 이인면민 전체가 합심한 결과다.

이날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3500여 명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대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 락 공연 등 볼거리와 먹거리의 환상적인 조합은 남녀노소 누구나에게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통돼지 바비큐 해체쇼는 이색 볼거리로 많은 인파가 몰렸고 바비큐 맛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번 축제는 민간주도형 농촌특화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가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축제를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훈(이인면)



반포면 주민자치회 오감만족 '주민자치 힐링장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까만 먹구름 사이로 흰 뭉게구름이 얼굴을 살포시 내밀며 어서 오라 손짓하고, 어김없이 반포면 힐링축제가 개막했다.

반포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반포농협 주차장과 충현서원 일원에서 힐링장터를 열었다. 축제에는 모두 36개 부스가 마련돼 향기리본, 큐티뽀짝인형, 철화분청사기, 짚공예품, 액세서리, 수제비누, 양초 각종 공예품과 도자기 등이 판매됐고, 경품 추첨을 통해 즐거움도 선사했다. 학생과 주민들의 재능 기부와 각 직능단체 회원들의 봉사활동은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여기에 더해 심폐소생술 체험, 인두화 체험, 가족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돼 반포면민들은 물론 축제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김정숙(반포면)



이야기가 흐르는 공주의 강 이야기

인류 역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4대 문명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었다. 이처럼 강은 사람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젖줄이자 교역의 주요한 통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강변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강과 함께 흘러왔다. 공주 곳곳에서 전해지는 강에 얽힌 전설을 소개한다.

남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미나리강 이야기

1992년 편찬된 ‘공주의 맥’에 채록된 이야기다. 조선 말기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서는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동학군이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공주에서 관군과 대치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다.

당시 공주에는 양반 세도가인 김순복의 서자 김덕봉이 살았는데, 그는 열일곱의 총명한 청년이었지만 서자라는 신분 제약으로 높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덕봉은 집안의 노비였던 옥녀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어느 날 김덕봉은 아버지 김순복이 관군에게 군량미를 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에 크게 반발하여 동학군의 편에 가담했다.

옥녀는 그에게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젊은 혈기의 청년 김덕봉은 끝내 동학 농민군과 합세하다 관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잡혀 온 동학군은 모두 금강변의 미나리강으로 끌려갔고 관군들에게 마구잡이로 죽임을 당했다. 소식을 듣고 옥녀가 달려왔을 땐 이미 늦은 뒤였다. 군졸들이 덕봉에게 달려들어 칼질을 해댔고, 옥녀는 눈앞에서 덕봉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그 후 옥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매일 통곡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미나리강에서는 남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미나리강 | 공주시 봉황동 금강 주변

두 이무기 보호 받는 유마천 이야기

사곡면 가교리는 태화산 기슭 마곡사에서 흐르는 사곡천과 유구차령에서 흐르는 유구천이 합쳐지는 곳에 있다. 이곳은 ‘유마지기 가활만인(유구와 마곡 사이는 만 사람이 살만하다)’이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우리나라 피난처로 손꼽히는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진다.

공주문화원에서 발행한 ‘공주의 전통마을’에 실린 이야기다. 옛날 옛적 유구의 북쪽 봉소산에는 수컷 이무기가 태화산에는 암컷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서로 좋아했지만 둘 사이에는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강줄기를 막고 있어 만날 수가 없었다. 두 이무기는 지네를 찾아가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지네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무기는 비가 오는 날 지네를 물리치고 함께할 계획을 세웠다. 대망의 날이 다가왔다. 수컷 이무기는 빗물로 불어난 냇물을 타고 지네에게 돌진했고 암컷 이무기는 산비탈에 있는 독초를 열심히 찼어 강물에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물 밑에서 땅이 꺼질 듯한 굉음이 나더니 독초를 마신 지네가 죽고 말았다. 이후 이무기들은 서로를 왕래하며 마음껏 사랑하다 은하수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두 이무기가 하늘나라에서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여기며 ‘하늘에서도 보살펴 주는 피난지’라 일컬었다. 지금까지도 사곡 유마천은 향시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하다.



유마천 |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일대



이달의 공연

☎ 041-852-0858



가족오페라
사랑의 묘약

12월 1일(금) 19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살롱 드 공주
피아니스트
의 수다

12월 13일(수) 11시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



특별초청공연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12월 16일(토) 15시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이달의 전시

☎ 041-857-3341



공주시평생학습프로그램
윷칠!
입히고 벗기고

12월 9일(토) ~ 12월 23일(금)
이은갤러리

이달의 전시

☎ 041-854-5345



더스토리,
정원이야기

11월 28일(화) ~ 12월 4일(월)
이미정갤러리



박성순
테라코타전

12월 5일(화) ~ 12월 11일(월)
이미정갤러리



천애
그리다

12월 19일(화) ~ 12월 25일(월)
이미정갤러리



박찬홍
첫 개인전

12월 26일(화) ~ 24년 1월 1일(월)
이미정갤러리

고향사랑기부제 10월 기부금 현황

2023년 1월~10월까지 총액
212,997,200원

문의 공주시 미래전략실
(041-840-2051)

1,395명 9,758,800원

김성복, 강성목, 이동화, 홍창수, 최해열, 이복일, 강도목, 박경숙, 김윤목, 임재관,
윤관원, 윤홍익, 이병수, 박범수, 최진, 김덕웅, 박나영, 박철, 김태중, 박홍준, 서도원,
양윤석, 신정아, 김재범, 이희수, 민경대, 최규보, 강화자, 김좌용, 정근철

※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모두 실어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모금된 성금은 지역복지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활성화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 창구

기부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16.5% 공제
+ 기부금의 30% 답례품 제공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10월 기부금 현황

2023년 1월~10월까지 총액
45,970,340원

2023년 10월 기부금 총액
12,336,940 원
문의 공주시 평생교육과
(041-840-8374)

일반

15건 11,650,000원

이용복, 이재권, 지희순, 나태주, 김경미, 이태훈, 최창석,
대한불교조계종 신원사, 김정섭, 이찬, (주)송원산업개발,
선진산업개발(주), 김희경, 서건석, 백옥희

공무원

64건 686,940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0월 기부금 현황

2023년 1월~10월까지 총액
1,265,225,736원

2023년 10월 기부금 총액
36,676,000 원
문의 공주시 복지정책과
(041-840-8126)

현금

9건 35,000,000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만희복지재단(박형만), 신동군,
신경철, 신희어린이집, 금흥중앙교회, 김옥희,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수원시충청도민연합회

현물

11건 1,676,000원 상당

미래로복스, 하모니투어, 미래산업, (주)아산마트 배방점,
함동새마을금고, 한흥농장, (주)성도, 미래산업, 은진식품,
홍릉수제만두, 행복엔지니어링㈜

※ 모금된 성금·물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됩니다.

동북오씨와 공주의 인연이 시작된다

목재 오백령

1560 ~ 1633

- 1) 녹선되다 : 벼슬 따위에 추천돼 관리로 뽑히다.
- 2) 동북오씨세덕십장 : 동북오씨 조상들이 쌓은 10가지 덕목을 글과 그림으로 엮은 것
- 3) 신후지지 : 살아있을 때 미리 잡아 놓는 묘자리
- 4) 목재공영각중수기 : 1928년 후손 오인영(吳麟泳, 1844~?)이 쓴 것으로 오백령의 영정이 봉안되는 과정과 중수사실을 적은 기록



목재 오백령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이괄의 난 때는 인조를 호종하여 공주에 왔던 인물이다. 본관은 동북(同福) 자는 덕구(德耆) 호는 목재(默齋)로 2021년 12월 공주시 역사인물인 오시수(吳始壽, 1632~1681)의 증조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사옹원 직장(直長)을 지낸 오세현(吳世賢)이며 어머니는 창녕성씨(昌寧成氏)로 참봉 성근(成近)의 딸이다. 형은 형조판서를 지내고 청백리로 녹선¹⁾된 오억령(吳億齡)이다.

선조 21년(1588) 29세 나이로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했고 선조 27년(1594) 별시문과에 급제해 예문관의 한림으로 뽑혀 사관이 됐다. 이어 사간원, 사헌부,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 성균관, 홍문관, 통례원, 병조, 의정부, 상의원 등 중앙관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동부승지에 임명돼 당상관이 됐으며 천추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인목대비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정청(庭廳)에 참여하지 않아 파직됐으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형조참판으로 기용됐다. 이후 도승지, 대사간, 대사헌, 이조·예조참판, 동지중추부사, 대사성 등을 지냈으며 인조 11년(1633)에 74세로 타계했다.

오백령은 효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왜병을 피해 임진강을 건너는 중에 도적이 칼을 들고 아버지 의정공을 해치려 하자 오백령이 이를 가로막고 몸으로 부친을 감싸 도적으로부터 보호했다. 또한 부인 고씨는 오백령을 보호했는데 이에 도적들은 효자(孝子)와 열부(烈婦)라고 감동해 칼을 거두고 이들을 살려줬다고 한다. 이 내용은 '이조참판 증영의정목재공백령묘갈명(吏曹參判 贈領議政默齋公 百齡墓碣銘)'과 '동북오씨세덕십장(同福吳氏世德十章)'²⁾ 승선피병(乘船避病) 편에 수록돼 있다.

동북오씨와 공주의 인연은 오시수가 우성면 단지리 월굴마을로 입향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증조인 오백령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오백령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1594년에 분조를 이끌던 광해군을 공주로 호종했으며 인조 2년(1624)에 일어난 이괄의 난으로 인해 인조가 공주로 파천할 때에도 인조를 호종했다. 오백령은 광해군을 호종한 공으로 위성공신 3등에 책록, 복천군(福川君)으로 봉군됐으며 인조를 호종한 공으로 사후 영의정에 추증됐다.

이후 오백령의 작은아들 오단(吳端, 1592~1640)은 의당 수촌 청송심씨와 혼인하고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됐으며 손자 오정원(吳挺垣, 1614~1667) 오정위(吳挺緯 1616~1692)와 오정원의 작은아들 오시대(吳始大, 1634~1697)까지 25년 동안 3대에 걸쳐 직계비속 4명이 충청도관찰사로 임명돼 공주에 부임함으로써 동북오씨는 공주와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된다.

오백령의 손자 오정원은 월굴마을에 자신의 신후지지(身後之地)³⁾를 마련했는데 오정원이 졸하자 아들 오시수는 이곳에 아버지의 묘역을 조성하고 현재 목재영당이 있는 곳에 망배루(望拜樓)를 지어 시묘살이를 했다. 시묘살이 후 그 자리에 사당을 건립하고 아버지의 위패를 모셨다고 한다. 또한 오시수가 졸하자 오시수의 아들 오상유(吳尙游, 1658~1716)는 오정원의 묘 아래에 장사를 지냈으며 관직에서 은퇴한 후 월굴마을에 은거했고 이후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번성하게 됐다.

목재공영각중수기(默齋公影閣重修記)⁴⁾에 따르면 본래 오백령의 영정은 황해도 배천 문희서원에 형 오억령과 함께 봉안됐으나 고종 8년(187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서원이 훼철되자 후손들이 단지리 월굴마을로 사우를 중수해 이전했다. 당호는 오백령의 당호를 따라 휴복영당(休復影堂)이라 했으나 2004년 사우가 오래되어 영당을 새로 건립하면서 '목재영당(默齋影堂)'으로 고쳤다.



국수 한 그릇으로 온정을 나누는 사람들

매주 금요일이면 산성시장 옆 공영주차장에서는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하다. 팔팔 끓는 물에 국수를 삶고, 잘 익은 국수 위에 육수를 부어 색색의 고명을 얹으면 끝. 거창한 메뉴는 아니지만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 어르신들과 복적이는 정이 그리운 주민들에게 공주시반야봉사단의 국수 한 그릇은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년째 계속되는 사랑의 국수 나눔

공주시반야봉사단(이하 반야봉사단)은 올해로 20년째 공주에서 국수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다. 30년 전 논산 지장정사에서 처음 시작된 국수 봉사는 이후 부여, 공주, 포항 등 전국으로 뻗어 나갔다. 반야봉사단을 결성한 지장정사 주지 법원스님은 “불교에서 널리 베푸는 뜻의 ‘보시’는 불교 실천 덕목 육바라밀 중 첫 번째 덕목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한다”며 “논산과 공주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지장정사는 신자들 가운데 50%가 공주시민일 정도로 공주와 연관이 깊으며, 공주와 인연이 있는 분들과 뜻을 함께하며 봉사단이 시작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국수봉사를 하는 매주 금요일이면 반야봉사단 회원들은 아침 8시부터 육수를 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육수를 끓일 때 들어가는 재료도 무려 9가지에서 10가지가 될 정도. 반야봉사단 김혜숙 회장은 “통영에서 직접 공수해 온 디포리와 표고, 멸치 등 최상급 재료만 사용해 육수를 만들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칭찬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차별 없이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꿈꾸며

현재 5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이 모인 반야봉사단은 종교와 관계없이 봉사의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종교의 차별 없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공덕,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주는 공덕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반야봉사단이 말하는 진정한 나눔이다.

반야봉사단에서 가장 고령인 어르신(86)은 금요일마다 국수를 먹으러 왔다가 직접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시장에 나와 복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는 시간이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했다는 것. 이제는 국수를 먹는 것을 너머 이웃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느끼며 더욱 행복해졌다는 게 어르신의 한마디다.

반야봉사단 회원들은 봉사하며 가장 즐거운 사람은 바로 본인 자신이라고 말한다. 꾸준히 봉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오는 12월에는 동지를 맞아 만 명의 시민에게 동지팔죽을 나누는 봉사활동도 계획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나누는 사회를 꿈꾸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불어 넣는 반야봉사단의 행보를 앞으로도 응원한다.



국수나눔 봉사를 하러 모인 반야봉사단



요리를 하느라 분주한 봉사단의 모습



디포리와 표고로 맛을낸 잔치국수

그 옛날 고향의 맛! 구수한 청국장 백반이 일품인 '삼미식당'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가 싫다며 멀리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그 냄새에 끌려 저절로 찾게 된다고 해 '고향의 맛'이라는 별명을 가진 음식이다. 공주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던 정겹고 푸근한 맛의 청국장을 요리하는 곳이 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삼미식당'이다.

46년간 한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삼미식당(중동)은 청국장과 된장찌개, 겨울에는 김치찌개와 동태찌개를 파는 백반집이다. 삼미식당 조귀예(62) 대표는 결혼 후 시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변함없는 맛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장맛이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것이 식당을 찾는 단골 손님들의 한마디다.

보글보글 끓여 나오는 청국장에는 투박한 듯 송덩송덩 썰어 넣은 두부와 호박, 뚝배기 가득 고소한 콩들을 품고 있다. 거기에 입안을 맴도는 향긋한 냉이는 청국장의 깊은 맛을 중화해주는 일등 공신. 밥에 들어간 공주알밤을 찾아먹는 것도 별미다. 때문에 식당에서는 청국장을 즐기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손님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갖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사계절 내내 다양한 나물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삼미식당만의 장점이다. 특히 가게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만든다는 '고등어 무조림'은 손님들의 최애 반찬. 매콤달콤한 양념을 가득 머금은 달큰한 무조림과 고등어 한 조각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이다.

맛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조 대표는 "특별한 비결은 없고 그저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요리하고 푸짐하게 대접하는 것뿐이다"고 답했다. 손맛과 겸손함까지 겸비한 그는 최근 점점 일이 힘에 부쳐 점심에만 문을 열면서 단골손님들께 미안함을 함께 전했다.

조미료와 인스턴트에 익숙해지는 요즘, 구수한 청국장은 지친 신체의 활력을 찾기에 최고의 건강식이다. 찬바람에 어깨가 움츠려 드는 계절, 삼미식당의 따끈한 뚝배기 청국장으로 고향의 맛도 느끼고 건강도 챙겨 보는 건 어떨까.



| 삼미식당 |

주소 공주시 먹자1길 2
전화 041-855-5840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 매월 셋째주 일요일 휴무
대표메뉴 청국장·된장찌개 백반, 돼지두루치기 등

▶▶ 공주시의 맛집 수기를 기다립니다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공주시 맛집에 대해
 들려주세요. 보내주신 글은 편집을 통해
 '이웃이 소개하는 로컬맛집' 코너에 소개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boowoon2015@daum.net
보내실 내용
 ① 맛집 소개 글과 사진
 ② 신청자 이름 및 전화번호



다른 그림 찾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림에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 O 표시를 하여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10분**을 추첨해 **모바일 유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5** 곳

공주 갑사 사천왕

갑사로 들어서는 입구의 천왕문에는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사천왕이 자리하고 있다. 사천왕이란 불법을 수호하는 네 명의 신을 가리키는 불교용어로, 보통 이 천왕상들은 부릅뜬 눈, 잔뜩 치켜 올린 검은 눈썹, 크게 벌어진 빨간 입 등 두려움을 주는 얼굴에 손에는 큼직한 칼 등을 들고 발로는 마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들은 본래 마귀들의 왕이었지만 불심으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의 밑으로 들어가 악귀로부터 절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11월호 정답



11월호 당첨자

- | | | |
|---------------|---------------|---------------|
| 권주향 (공주시 금학동) | 배유빈 (논산시 강경읍) | 채나음 (공주시 계룡면) |
| 김승현 (공주시 일곡동) | 백희수 (서울시 서초구) | 황수봉 (대전시 오류동) |
| 김시인 (공주시 신관동) | 성기훈 (화성시 향남읍) | |
| 문승화 (공주시 신관동) | 이경호 (광주시 광산구) | |

독자편지

매번 소식을 읽으며 독자참여를 응모해봐야지 생각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됐네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역사가 답하다 코너는 국사공부를 하며 봤던 친숙한 이름과 사진이 나와서 더욱 반갑게 읽고 있어요. 아쉽게도 이번 대백제전에 가지 못했지만 행사 사진을 실어주신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매달 소식을 읽으면서 공주시에 더욱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공주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주시기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임수빈(공주시 월송동)

11월호에 소개된 농업이 미래다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퇴직 후 귀농에 뜻을 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한 강 대표님의 이야기를 보며 많은 젊은이들이 뜻을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나무와 대화를 한다는 문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농부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농산물은 건강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죠. 농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강 대표님께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구매하고 싶네요 ~^^

김종숙(세종시 도담동)

독자 편지

흥미진진 공주를 읽고 느낀 소감,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2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그림 찾기

다른 부분을 찾은 사진과 함께 이름, 주소(읍면동), 휴대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분께 모바일 유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12월 7일(목)까지
보내실곳 (이메일) boowoon2015@naver.com
(우편)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194, 2층
문의 070-5030-3039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기부제도



리 고향사랑기부제 내 마음 공주愛



♥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기부금의 30% 포인트 제공으로 지역의 답례품 선택
공주 밤, 알밤하우 등 31종의 다양한 지역상품 / 큐알코드를 찍어보세요.

♥ 기부를 결정하셨나요? 방법은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전국NH농협 창구 문의 미래전략실 041-840-2051

· 공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특별(한정)답례품 ·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면
감사한 분께 떡 선물을!

궁중의 맛을 전하는 공주궁중떡_궁중떡 설(雪)기 세트

어린시절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 할아버지가 머리 밑에 놓아 둔 선물의 설렘과 추억이 있습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우리가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궁중떡 설기 세트'로 받은사랑을 되돌려주세요.

크리스마스 메시지카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원초를 담아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어르신과 어린이의 건강을 생각해 천연 식재료만 사용해 만듭니다. 여섯 번의 공정을 거쳐 보들보들하고 공기층이 살아있는 질감이 남다른 촉촉한 프리미엄 설기떡입니다.

*현재 기부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전 택일하여 수령(일괄배송)

※ 더 많은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및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